

여수 화물차 휴게소 SK 선정 “철회하라”

시의원·지역민 “부지 부적절·지역환경 어렵다”
시 “외부 평가기관 의뢰… 절차 문제 없다” 고수

여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사업자가 SK로 선정되자 지역민들이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는 신정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철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수시의회 의원 21명이 선정 철회 건의문을 채택해 여수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정재 의원은 21명은 6일 건의문을 통해 “여수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역 성공인을 비롯한 주민 대다수가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여수시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화물차동차 휴게소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은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장래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역 경제인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화물차동차 휴게소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선정 결과에 반대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사업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부지로 예정된 주삼동 삼동마을 일원은 지난 2001년 12월 여수 국가산

업단지 연관 단지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무공해 지원지역으로 분류돼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들어설 경우 공해 유발과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연고나 기여도가 없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특례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지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기업을 선정할 경우 앞으로 기업의 환경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의문을 발의한 박정재 의원은 “여수시는 외부 평가 기관에 의뢰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의 전문가나 대학이 배제되고 윤산지역 대학 모 기관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며 “민선 4기 시절 지역민을 무시하고 수백억원을 들인 각종 사업의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해도 지역민의 동참이 없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시장이 결단을 내려 여수시가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해 8월 화물차동차 휴게소 우선협상 대상자로 SK로 선정했으나 최근 공모에 탈락한 GS칼텍스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아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수산단내 주삼동 일원 5만3539㎡부지에 총186㎡ 원을 들여 조성되는 여수 화물차동차 휴게소는 화물차동차 339대 등 436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과 주유소, 경정비소, 식당, 화물 정보센터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다’
도농기원 육성 7개 장미실품종 ‘호평’

이날 평가회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와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 70종(30개 품종·40개 계통)과 50여 점의 꽃꽂이 작품이 출품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장미는 꽃색이 적백색으로 선명하며 향기가 있고 흰가지에 강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하며, ‘호평’ 품종은 꽃이 크고 가시가 적으며 수량이 많아 적백색의 꽃색 품종 중에서는 최고의 국산품종으로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품종들은 결혼시즌의 신부 부케용 장미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사랑으로 희망으로 일어섭니다”

여수장애인시설 ‘동백원’ 9일 한마음 체육행사

“사랑으로 잡아주면 희망으로 일어납니다.”

여수 사회복지법인 송정회(이사장 김홍용) 장애인 시설인 동백원이 오는 9일 여수시 도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

해 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생활자, 가족, 직원, 포스코 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한데 어울릴 예정이다.

오전 9시30분 개회식에 이어 퓨전음

악, 색소폰 연주, 포스코 봉사단과 장애인 가족의 친선경기, 각종 게임 등으로 진행된다.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는 포스코 광양제철과 협력업체인 성암산업, 부곡산업, 삼진기업, 이에스테크, 대광, 신창, 태운, 대성, 화인의 후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열려왔다.

이날 행사는 주최한 김홍용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 한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가 이웃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재 신규 기능인력 수요 규모를 약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올해 응접 분야 등에서 일할 인력 1800여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강진서 ‘4·4 독립만세운동’
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4일 강진읍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됐다.

강진군은 지난 4일 강진읍 남포리에서 군민, 공무원,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4 독립만세운동’ 재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민간육종 연구단지 공모 탈락

최적 조건 불구 유치 불발… 김제 최종 선정

농립수산식품부 주관의 민간육종 연구단지(시드밸리) 공모에서 장흥군이 탈락했다.

농립수산식품부는 6일 시드밸리 조성을 위해 공모를 거쳐 김제시와 장흥군 등 4개 지역의 후보지 가운데 김제시 백산면 축산시험장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입지선정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입지를 확정했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3월 이뤄진 현

지 실사에서 이명률 장흥 군수가 직접 나서 1시간 이상 비교우위의 입지 대상지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군수는 실사후 곧바로 상경해 지역 국회의원들 및 농식품부 1·2차관과 잇따라 만나 대상지 선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였다.

전남도 역시 장흥이 육종 연구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춘데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예·특

용작물의 최대 생산지이고 전남대와 동신대 등의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한 점을 내세워 장흥 유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 까지 270억원을 들여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20여개 종자업체를 유치해 세계수준의 육종 연구와 종자수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에는 주농우바이오 등 국내 중견 종자업체 20여개도 입주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한국농어촌공 광주지사 농지매입사업 22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행운)는 올해 경영위기 부채농가를 돋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로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농가부채를 갚고 매입농지를 당해 농가에 저렴한 임차료(매입가격의 1% 이내)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해 농가가 경영회생을 돋는다. 문의(062-380-8611) /송기동기자 song@

전남 조선기능인력 1800명 양성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주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교육이 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 조선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한국풀리텍 V대학,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조선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총원해야 할 700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1~2개(2005~2009년·1940여명)에서 양성한 인력을 도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전문학교 인력(27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270명)에 대한 조선산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인력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